

통권 제 249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7

원정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26  
구경의 법



심선성취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나




마지막 공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 위드 다르마

With Dhā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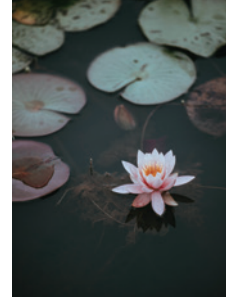
 불교총지중

종조법설집

종조법설집 제 3장 잠언편 P200

이타利他가 위대한 자리自利

대중을 이롭게 하면 그 사례로서 자기도 이로우며  
완전한 장원한 이익이고 화평和平과 은애恩愛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복락이 무궁하다.



고전 속으로 \_30  
내가 곧 살아 있는  
꽃이니  
\_ 신로사



살다보면 \_38  
묘약인가 독약인가  
\_ 이옥경



지혜의 트랙 \_47  
젊은이여! 연애하라  
\_ 방귀희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0 불교 이야기
- 14 지장스님의 향유
- 17 십선성취
- 20 경전에서 찾은 지혜
- 22 마음챙김 메커니즘
- 28 절기 이야기
- 30 고전 속으로
- 33 문화재 해설
- 36 산책
- 38 살다보면
- 44 마음의 등불
- 47 지혜의 트랙
- 50 마음밭 가꾸는 이야기
- 54 마지막 공부
- 56 동행
- 60 생각의 열매
- 64 우리절 노래꽃
- 66 서원당 안의 불교
- 68 금쪽상담소
- 70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4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7 광고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구경의 법 - 김천
- 육자대명다라니六字大明陀羅尼\_②상징과 의미 - 원당 정사
- 사유의 모험 - 지장 스님
-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나 - 남혜 정사
- 밥을 서로 사양하다 - 불교총지중 법장원
- 멈춤 - 임진수
- 불벌, 짐통, 염소 불도 녹는다는 대서大書 - 위드다르마 편집실
- 내가 곧 살아 있는 꽃이니 - 신로사
- 백자 청화 산수무늬 사각병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작은 약속 - 김대곤
- 묘약인가 독약인가 - 이옥경
-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 법상 정사
- 젊은이여! 연애하라 - 방귀희
- 나만의 고통이 아닌 우리의 고통으로 - 하현주
- 놓치고 싶지 않은 것 - 유소림
- 제갈공명의 부인 황 씨 이야기 - 탁상달
- 3 x 8=23!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우란분절 - 요원화 전수
- 서원당 중앙 불단佛壇의 문양紋樣 - 해광 정사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2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 제8회 청소년 한마음 캠프

위드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기회는 노크하지 않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는 남북전쟁(1861~65)과 패전, 재건시대의 조지아주를 배경으로 아름답고 강인한 스칼렛 오히라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사랑, 욕망, 희망, 그리고 상실을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1936년 출판되어 이듬해에 풀리처상을 수상했으며 영화로도 대성공하여 아카데미상 10개 부분을 휩쓸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 마거릿 미첼은 원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행하던 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리를 다쳐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 기간엔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자기 일에 큰 자부심이 있던 그녀는 이 사실에 낙심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집필 끝에 책이 나왔지만 어느 출판사에서든 선뜻 무명작가의 책을 내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 뉴욕에서 제일 큰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 레이슨이 애틀랜타에 온다는 소식에 기차역으로 찾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 원고예요. 꼭 좀 읽어봐 주세요.” 레이슨은 원고를 받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첼은 자신의 원고를 읽어 달라며 레이슨에게 계속 전보를 보냈습니다. 미첼의 계속된 끈질김에 결국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출판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그녀의 의지가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진 운명은 그들의 목을 부러뜨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꺾어 놓지는 못했다. 그들은 우는소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싸웠다.’ 기회는 어느 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까지 필요합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4.6.17.>



##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 18화-창종Ⅷ

대성사가 공을 들인 또다른 불사가 있었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호국가불사이다. 종단의 기틀이 탄탄해진 1970년대 중반은 냉전시대의 위기감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남과 북의 긴장뿐 아니라 동서진영의 경쟁과 대립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고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정도로 긴박했다. 신라의 명랑 법사가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문두루 비법을 행한 것처럼 밀교행자들은 언제나 국토와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왔다.

1975년 대성사는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을 근거로 삼고 진호국가불사 의궤를 정립했다. 특히 베트남 패망으로 위기감이

높아졌을 때 5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접 정진하여 본을 보였다. 국가의 발전이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밀교 수행과 국가의 안녕, 국민의 안락이 일치함을 법문으로 남겼다.

“법신불은 본래 있어 보리심(菩提心)에 비유하고 화신(化身)불은 닦아나니 보리행에 비유한다. 법신불이 증생 위해 당신이 곧 화신이니 법신부처 이 밖에는 다시 부처 없는지라 법신불은 태양 같고 화신불은 만월같다. 그러므로 법신명호 비로자나 대일(大日)이라.

밀교 본신 양인 고로 현세정화(現世淨化) 위주하며 밀교 본신 양을 쓰고 일요자성(日曜自性) 날을 한다. 현세안락(現世安樂) 서원하여 이땅 정토(淨土) 만드므로 진호국가(眞護國家) 서원으로 자기 성불하기 위해 식재증의(息災增益) 경애항복(敬愛降服) 사종법(四種法)을 수행하니 국민 모두 안락하고 국토 모두 성불된다. 이것이 곧 오는 세상 몇 천 겁을 기다려서 성불함이 아니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이라 한다.”

진호국가불사를 거행하고 모든 불사를 양력으로 진행한 뜻을 밝힌 것이다. 국가공휴일로 제정된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 모든 불사를 양력 기준으로 시행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이 태양을 상징한다는 교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대인의 변화된 생활양식에 맞춰 현대적인 종단 운영에 그 취지를 더했다. 음력 위주였던 불교계의 오랜 관행을 거침없이 깬 셈이다.

### 법계와 함께

대성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대성사가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었다.”고 전한다. 남에게 신통을 자랑하거나 신비를 내세우는 일은 결코 없었지만, 어떤 결정이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지혜의 폭과 깊이를 수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정사와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빙긋 웃으며 불공을 권하고 “법계가 드러내는 법을 따르라.”고 했지만, 앞을 내다보는 실마리를 주었다고 한다.

2차 대전의 종전, 일본의 패망, 남북의 분단, 한국전쟁의 발발과 복진 등을 예견한 일은 친족들이 생생히 기억하며 증언하고 있다. 늘 세계의 소식을 남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대비했던 일은 주변인들이 보고 아는 대성사의 또 다른 모습이다.

대성사의 혜안으로 오늘의 총지종을 이룬 하나의 사건이 있



수인을 결하고 진언 연습 중인 대성사



서울 역삼동 총본산 총지사 건립 중 대성사와 스승, 교도들 모습



었다. 종단 간판을 건 성북선교부는 건물이 좁고 종교적인 용도로 쓰기에 부적합하였기에 종단의 총본산이 될 만한 곳을 찾고 세워야 했다. 여러 곳이 거론되고 각각 이유와 이점이 있었으나 대성사는 당시에는 강 건너 멀고 먼 변두리 땅이었던 지금의 총지사 터를 점찍었다.

1960년대 초까지는 광주군에 속했고 총지사 터를 구입한 1975년까지는 성동구의 일부였다. 그야말로 허허벌판으로 배추밭과 과수원이 있던 황무지여서 지명조차 없이 영등포의 동쪽이란 뜻으로 ‘영동<sub>永東</sub>’으로 부르던 곳이다.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면 막 개발이 시작된 영동 땅이 나오고, 구비구비 한참을 더 가야 역삼동 근처에 내릴 수 있었다. 주변은 논밭이라 비가 오면 진창길로 걸을 수조차 없었던 땅이고, 멀지만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생긴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말죽거리 윗방아다리라는 옛 지명을 가진 볼 것 없는 곳이었지만, 대성사는 이곳이 한국 밀교의 미래를 열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1975년 새해 불공으로 총본산 건설을 서원하고 교도들의 힘을 모아 3월 28일 대지 328평을 매입했다. 그 후 인근 대지를 더 사들여 지금과 같은 터를 만들었다.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후세에 가치가 남을 일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길을 열어가는데 이들의 특징이다. 역삼동 총본산 건립은 당대의 눈이 아닌 미래를 위한 행원으로 내린 결정이다.

총본산 건설은 대지를 다 확보한 5월 31일 기공식을 열었다. 이미 진각종의 전국 곳곳 심인당을 지은 경험이 있던 터라 대성사의 지시와 감수로 공사가 진행됐다. 자재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챙기고, 공정마다 잘 진행되도록 종단의 힘을 모은 덕에 건축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기공식 5개월 만에 대부분의 건물은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공중의 일을 위하여는 생명을 바치고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지 말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덕을 베풀고 자기의 이익은 취하지 말라.”

대성사는 공과 사에 엄격하여 건축을 맡은 이들은 늘 긴장을 멈추지 못했다. 평소 강조하던 말 때문이다. 공사에 장난을 치거나 주어지지 않은 이득을 얻으려는 이들은 대성사의 이런 태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육자대명다라니 六字大明陀羅尼

②상징과 의미

월당 정사

진주 화음사

육자대명다라니는 ‘관자재보살본심미묘육자 대명왕진언’, ‘육자대명왕진언’등으로 불리고 있는 ‘옴 마니 반메 흠’의 여섯 자로 구성되어 있는 진언을 말한다. 이 육자대명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로마자 표기)로는 Om mani padme hum이라 하고, 티베트어(로마자 표기)로는 Om Ma-ni Pe-me Hum으로 발음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옴 마니 반메 흠’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옴 마니 반메 흠’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옴(Om)’은 대부분의 진언의 앞에 위치하는 말로써, 우주의 최초 및 최후의 소리로 우주의 모든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모든 소리는 옴(Om)에서 나와 다시 옴(Om)으로 환원된다고 본다. 또한 모든 언어에 옴(Om)이 내재되어 있고 편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옴은 인도의 베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말로 ‘그렇다’라는 응낙의 의미로서 종교적인 의식 전후에 암송되는 신성한 음이었다. 힌두교에서 옴(Om)은 A-U-M의 세 글자의 합성어로 보는데 각각 만물의 발생·유지·종멸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A는 창조신인 브라흐마(Brahman)신의 현현으로, U는 유지신인



전주 흥국사 서원당

비슈누신(Visnu)의 현현으로, M은 파괴신인 시바(Siva)신의 현현으로 배대하여 삼신일체의 교리에 대비하는 것이다. 밀교에서도 옴(Om)은 신성한 밀어가 되어 이 세 가지 글자는 법신·보신·화신의 삼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서는 옴(Om)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라니의 어머니인 옴(Om)은 A-U-M의 세 글자로 나누

어지는데, A는 보리심이나 법신불을 상징하고 U는 보신불을 상징하고 M은 화신불을 상징하고, 일체법이 나온 곳이며 삼제제불이 모두 이 옴(Om)을 관상하여 보리를 얻었으므로 이 옴(Om)은 일체의 다라니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옴(Om)자를 관함으로써 그 공덕에 의해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옴(Om)자는 비로자나불의 진신이며 다라니의 어머니로 일체 여래와 보살이 이 옴(Om)으로부터 출생하며, 일체 법문이며 대일여래의 진신이며 일체 다라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일체여래는 모두 이 옴(Om)자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옴(Om)은 모든 존재를 담고 있는 무한한 법계의 원리를 상징한다. 옴(Om)은 우주에 변환하여 있는 덕성 즉 우주적 법칙, 생명력, 창조력, 지혜 등을 전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마니(mani)’는 마니주 즉, 여의보주를 뜻한다. 여의보주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보석을 말한다. ‘반메(padme)’는 연꽃을 뜻하는 명사 ‘padma’에 처소격 접미어가 붙어 있는 말로서 ‘연꽃의’라고 번역되며, 인도의 신 브라흐마 또는 비슈누의 화신으로 보고 있으나, 불교에서는 연화수(padmapani) 보살을 상징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마니’는 마니주-마니보라고도 하는데, 불행 재난을 없애주고 탁수(濁水)를 청정하게 하는 덕이 있다고 하며, 특히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가지의 진보를 내는 덕이 있는 보주를 여의보주라고 일컫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열뇌(熱惱)를 없애고 청량을 주는 덕을 지닌 지혜로 상징하고 있다.

‘반메’는 연꽃으로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탕에 물 들지 않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사바세계에 처하면서 때 묻지 않는 청정한 지혜를 상징하고, 그러면서 진흙탕을 떠나지 않고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사바세계를 버리지 않는 관음의 자비를 상징하고 있다.

‘흙(hum)’은 여러 의미가 포함된 복합어로서 여러 어구가 종합되어 만들어진 글자이다. 즉 ‘원인’이란 뜻을 가진 hetu라는 명사의 h와 ‘감소시키다’라는 뜻을 갖는 과거분사의 u를 취한 채, 음편 m을 더해서 만든 글자로서 ‘원인을 감하다’ 또는 ‘원인이 되는 업을 없앤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옴 마니 반메 흙’은 “옴, 연꽃속의 보주시여(또는 연화상보살의 보주여)! 원인(생노병사 등의 고통)이 되는 업을 멸해 주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사유의 모험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폴 니터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석좌교수입니다. 원래 카톨릭 신부였다가 환속해서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분의 대표 서적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책으로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가 있습니다. 성직자였지만 현실과 교리와의 괴리감에 고민과 방황에 빠져 있다가 다른 여러 종교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교를 접하게 되고 명상 수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불교 수행을 통해 니터 교수는 본래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면서 니터 교수는 불교를 손전등에 비유합니다.

어두워 볼 수 없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방편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는 학생들에게 불교신학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불교신학은 불교와 신학을 혼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교적 사유체계를 빌어와 기독교의 사상을 바라보자는 것뿐입니다.

폴 니터 교수의 이런 시도들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파적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태어난 환경이나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 교육의 영향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인식 기능 자체가 불완전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들을 종합해서 어떤 지식 체계를 축적시켜 가고 있는데 이마저도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본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봅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설령 자신이 기대하고 찾고 있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불교 명상 수행은 기본적으로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시작합니다. 비움과 내려놓음은 현재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상들을 무심히 대하는 연습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도 필요하고 오래도록 반복 연습해야 가능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다시 통찰 연습이 이어집니다. 비우고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막막하고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 자체를 보고 아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상태의 맥락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특정 작가의 작품을 여러 편 보면 그 작가의 특성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통찰 지혜라고 합니다. 통찰 지혜는 다시 여러 차원으로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찰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현실의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달라집니다. 마치 어렸을 적 딱지나 종이 인형에 애착을 가졌다가 성인이 된 후 그것들을 별 것 아닌 것으로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통찰 수행을 연습하면 기존 인식 대상이나 인식의 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이런 주체적 사유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인간만이 가진 특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커질수록 인식의 자유도 커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모험을 떠나지 않으면 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익숙한 인식의 틀을 거리 두고 잠시 만이라도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인식의 모험을 감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다른 자신감을 가진 한 동양 여성 모델의 ‘자신감의 원천’을 소개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이 여성은 자신감의 원천으로 신앙심을 꼽았는데, 이러한 기사를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의 구별을 떠나 삶에 대한 당당한 태도가 멋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나온 영상을 보면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곧은 자세로 경쾌하게 걷는 여성에게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나?”는 질문을 던지자, 여성은 이 깜짝 질문에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활짝 웃으며 답했다.

기독교인들에게 자신감의 원천은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인들에게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일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부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불교인들에게 자신감의 원천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sup>自信感</sup>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를 믿는 감정’이란 뜻이다. 그리고 자신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자신감의 본연의 의미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의 넓은 의미의 뜻으로 자존감이 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sup>自我尊重感</sup>의 줄인 말로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을 말한다.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며,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 정도로 표현된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듯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시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자신감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예절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변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바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우주의 근본이며 출발점이다. 내가 태어남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또한 내가 죽는 날 이 우주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각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시하고, ‘나’라는 존재를 유지할 수 있게 지탱해 주는 이 우주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얻어지는 복덕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





옛날 도 닦는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밥을 구걸하러 가던 중 동네에 이르기도 전에 폭풍우를 만났다. 마침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관<sup>官</sup>의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동산지기가 살고 있기에 도사가 가서 청하였다.

“오다가 그만 비를 만나 옷이 모두 젖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 불에 옷을 말렸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동산지기가 허락하자 도사는 들어가서 나무에 불을 지피고 옷을 말렸다. 이윽고 옷이 말랐으며 비도 조금 멎었다. 도인이 옷을 입고 떠나려 할 때 동산지기가 물었다.

“도사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현자<sup>賢者</sup>여, 일체 형체를 지니고 있는 육체는 옷과 밥이 생명입니다. 나는 도를 배우기 위하여 집을 버리고 결식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밥을 얻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고 육근이 안정되지 못하여 도를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맛없고 초라한 밥이나마 저희 집의 음식을 잡수셔도 좋다면 식사를 하시고 가십시오.”

“도를 배우며 밥을 구걸하는 것은 색과 맛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배를 채울 따름인 것입니다. 함께 먹기를 허락하시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 식사법에는 자기 몫을 각각 따로 먹는 법이 있었다. 그래서 동산지기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 몫을 가져오시오. 마침 귀한 손님이 계셔서 식사를 대접해야겠소.”

그러자 그 아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남자요, 또 춥고 더운 것을 무릅쓰고 온갖 노동을 해내야 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찌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자로서 집에 한가하게 있으니 제 몫을 손님에게 대접하십시오.”

그 아들이 또 말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서 연세가 많으시니 그대로 잡수십시오. 제 몫을 드리겠습니다.”

그 며느리가 또 말하였다.

“아버님과 어머님과 당신이 손님에게 자기 몫을 양보하시지만 저는 나이가 어리고 기운이 건장하여 배고픔과 갈증을 견디고 참을 수 있으니, 저의 몫을 손님에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동산지기가 말했다.

“그대들이 착한 마음으로 헤시하려 하니, 이제 여러 사람의 몫을 조금씩 덜어 모으면 넉넉히 손님을 대접할 수 있을 것이요.”

가족들은 각각 자기 밥을 조금씩 덜어서 도인을 대접했다.

『제공재환경, 除恐災患經』 불교총전 발췌



## 멈춤

### 내면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명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떤 명상도 처음엔 멈춤에 초점을 둔다. 멈춤이라는 것은 명상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멈추는 것일까? 멈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명상을 시작한다.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기를 가르친다.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욕망을 멈춰야 한다.

예를 들면, 흙탕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용기가 있다. 그리고 이 유리용기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자. 먼저 유리용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리용기를 한곳에 정착시켜야 한다. 이것이 1단계이다. 이렇게 유리용기를 멈추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출렁거리던 흙탕물도 잔잔해진다. 이것이 2단계이다. 이렇게 잔잔해진 흙탕물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무거운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위쪽엔 투명한 물이 남게 된다. 이것이 3단계이다.



멈춤은 이와 같다.

**1단계로 감각을 멈춰보는 것이다.** 이것은 움직이는 유리용기를 어느 한 장소에 정착시키는 것과 같다. 즉 외부의 감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지한다. 이렇게 인지하는 작용은 나를 중심으로 의식이 바깥으로 향한다. 감각의 작용에 의해 인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감각을 멈추면 바깥을 향하던 의식이 내면을 향하게 된다.

**2단계로 감정을 멈춰보는 것이다.** 이것은 유리용기 속의 출렁거리는 흙탕물이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 감정은 감각에 의해 활



성화되기도 하고 생각에 의해 활성화되기도 하며 또 다른 감정에 의해 활성화되기도 한다. 외부의 감각이 멈춰지면 감정과 생각만 남아있는데, 생각을 통해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을 인식한 순간 감정의 출렁거림을 찾아들게 된다.

**3단계로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이것은 유리용기 속에 있던 흙탕물의 흙성분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위에는 맑은 물이 생성되는 것과 같다. 사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초보 단계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명상을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생각은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각을 멈춘다는 의미는 그동안 자신을 온전히 둘러싸고 있는 생각에서 빠져나와 보는 것이다. 생각 속에 빠진 자신을 다른 생각으로 전환해 보는 것이다.

**4단계는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흙탕물에서 분리된 흙과 물을 제대로 구분해서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감각과 감정과 생각을 멈추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던 욕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용해온 감각과 감정과 생각이 멈춰지면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욕망이 아닌 본연의 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제대로 된 명상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는가?

감각은 계율을 통해 다스린다. 현대사회에서 계율이란 법규나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삶의 방식이란 감각에 물들지 않은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사실상 감각에 물들지 않은 삶이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감각에 물든 삶을 잠시 멈춰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계율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평생을 살아온 감각적인 습관을 멈추는 것이다.

또한 계율을 통해 자신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감각을 통해 일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쾌락을 쓰면 쓸수록 감정의 진폭은 커지고 생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감정은 격해지고 이성은 마비되어간다. 문제는 감각적인 쾌락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는 끝이 없지만, 신체의 한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 감정적인 즐거움을 점점 더 추구하게 되면서 더 큰 감정의 진폭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의 생각은 그런 감정의 방향을 따라 일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생각보다는 감각과 감정적인 생각인 욕망에만 몰두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감각을 통한 감각적인 쾌락을 잠시 멈춰보는 것은 초급 명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은 집중과 고요함을 통해 다스릴 수 있다. 감각을 어느 정도 멈춘 후에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감정은 집중을 통한 고요함으로 다스린다.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명상이 필요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보통 수식관(數息觀)이라고 불리는 입출식념(入出息念) 명상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것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서 호흡에 맞춰 숫자를 세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집중이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감정은 가라앉고 생각은 투명해진다. 그러면 고요함이 나 자신에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요함의 기준점이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눈치채게 된다. 그 감정이 분노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고요함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감정을 멈추는 방법이다.

사람들에 따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은 게임을 할 때 집중을 잘하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 집중과 이 집중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게임과 같은 것들은 자신의 감각과 감정과 생각을 통한 쾌락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신의 쾌락에 집중하는 것은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렇게 욕망에 집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명상에서 말하는 집중이란 욕망을 여윈 집중을 의미한다. 욕망적인 집중

이 아니라 비욕망적인 집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욕망적인 집중은 욕망에 빠져서 사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생각은 통찰과 지혜를 통해 다스릴 수 있다. 통찰과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통찰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앞에서 말한 집중명상을 통해 감정이 가라앉고 고요함이 머물면 투명해진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관찰명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흔들리는 자동차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와 마찬가지로, 고요함에 머물러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들을 관찰하다 보면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더불어 지혜가 생기게 된다.

결국 관찰을 통해 통찰하는 힘과 지혜를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욕망은 감각과 감정과 생각을 통해 다스려지는 것이다. 멈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욕망을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욕망에 의해 휘둘리는 삶이 아닌 욕망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것이다. 멈춤은 명상의 처음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멈춤은 명상의 시작이며 이 시작은 자신을 찾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인 것이다.





곳곳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끊임없는 무더위로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7월,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한 이 시기를 옛 사람들은 대서라 불렀다.

대서는 24절기 중 열두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이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소서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 사이에 있는 대서는 큰 더위라는 의미에 걸맞게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양력으로 7월 23일이다.

중국의 전통의학서인 <황제내경>에 계절의 변화와 인간의 삶에 대해 언급된 이래, 당나라의 역사서인 <구당서>, 원나라의 <수시력> 등 여러 문헌에 대서 기간을 5일 단위로 3후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대서의 초후에는 썩은 풀에서 곤충이 자라고, 중후에는 흙이 습해지며 날씨가 더워지고, 말후에는 큰비가 때때로 내린다고 한다.

대서에는 ‘대서 더위에 염소 뿔도 녹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더위가 심한 시기이다. <중종실록>에는 “강독講讀은 다 3일에 한 차

레 하나, 한추위, 한더위라면 3일을 넘기더라도 무방합니다.”라고 아뢴 정도로 궁궐에서도 대서는 무더웠다. 고대 중국에서는 대서를 맞아 황제가 신하에게 얼음을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얼음은 겨울에 채취하여 빙고에 저장했던 것을 꺼낸 것으로, 베이징에 여러 곳의 빙고가 있었다.

이 무렵 농촌은 논밭의 잡초를 뽑고 풀과 짚을 섞어 퇴비를 만드는 등 농작물 관리에 숨 돌릴 틈이 없다. 이 무렵은 참외, 수박, 채소 등이 풍부하고 햇밀과 보리를 먹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에 있는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이렇게 신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졸음, 피로,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고, 입맛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보양식도 좋지만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제철 과일을 먹음으로써 부족한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좋다.



## 내가 곧 살아 있는 꽃이니

신로사

한문고전번역가, 성균관대학교 한문학 박사

세상 사람들은 그림을 좋아하는데,  
아주 꼭 닮은 것을 좋아한다. (...중략...)  
내가 곧 살아 있는 꽃이니,  
그린 것이 꼭 닮았다고 말해서 무엇하리.

世人愛畫 愛其酷肖也 (...중략...) 吾便爲生花 更何言繪之酷肖哉  
세인애화 애기혹초야 (...중략...) 오변위생화 갱하언회지혹초재  
-위백규(魏伯珪, 1727~1798), <존재집存齋集>권12, 「격물설格物說」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장흥에서 저술과 교육 활동으로 평생을 보냈다. 그의 박식함은 널리 알려졌는데, 그의 저작 중 <환영지實瀛誌>는 마치 백과사전처럼 천문, 지리, 문물, 제도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위백규는 박학博學에 그치지 않고, 사회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 사회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애썼으며, 노년에는 정조의 명을 받아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리기도 하였다.

위의 문장은 「격물설格物說」에서 ‘사물事物’ 조목에 나오는 한 구절



이다. 사람들은 그림을 좋아하는데 실물과 매우 흡사하게 그린 것을 좋아해서, 그 그림을 상자에 넣고 향<sup>香</sup>을 넣어서 보물처럼 보관한다. 그림이 흑여 더러워질까, 냄새가 날까 염려하여 보배처럼 다루지만, 정작 자신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꽃이 진짜이고, 그림은 가짜인데 사람들은 진짜는 보지 못하고 가짜만 본다. 이에 위백규는 내 자신이 곧 살아 있는 꽃인데, 꽃 그림이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고 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1805~1875)의 유명한 동화 ‘황제와 나이팅게일’도 진짜와 가짜에 관한 이야기다. 옛날 중국 황제는 자신의 정원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산다는 것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찾아오게 시키지만 모두들 작고 볼품없는 새가 나이팅게일인지 알지 못했다. 황제는 미천한 소녀를 통해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태엽 감는 새’를 선물로 받았



다. 이 가짜 새는 나이팅게일처럼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는데, 태엽만 감으면 지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가짜 새에 환호하였고, 진짜 새는 숲속으로 가버렸다. 시간이 흘러서 가짜 나이팅게일의 태엽이 고장 났고, 황제도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 황제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진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다시 건강해졌다는 결말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가짜에 현혹되기 쉽다. 그래서 꽃은 놓아두고 꽃을 그린 그림만 소중히 다루고, 살아 숨쉬는 새는 보지 못하고 태엽 감는 가짜 새에 환호하게 된다.

그런데 위백규는 가짜와 진짜에 대한 분별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람은 생김새가 성현과 꼭 닮았다. 내 심성이 성현과 같기 때문에 나를 극복하고 성실함을 보존하고 처음을 회복하면, ‘내가 곧 성인이고 성인이 곧 나’라고까지 말을 하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살아있는 새는 보지 못하고, 보석으로 치장한 가짜 새만 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이 귀한 줄은 모르고, 외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백규의 말처럼 참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겠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해상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바닷길을 통해 서양으로 건너간 도자기를 우리는 ‘무역 도자’라고 부릅니다. 동서 문화 교류의 산물인 무역 도자의 면면을 살펴다 보면 여러 재미있는 사실과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자 청화 산수무늬 사각병白磁靑畫山水文四角瓶>은 이러한 무역 도자의 전통 아래 탄생한 작품입니다.



조선 백자 도자기, 높이 21.3cm, 가로 9.8cm/국립중앙박물관 박혜선 큐레이터 추천



## 조선 후기 백자 사각병의 등장

〈백자 청화 산수무늬 사각병〉은 단정하고 차분한 기형에 청화 안료의 발색 또한 안정적인 수준 높은 작품입니다. 몸체에 사각 테두리를 그리고 그 안에 산수무늬를 그려넣었습니다. 어깨에는 고대 청동기에서 자주 보이는 뇌문雷文이 장식되었고, 그 위에는 네 면을 둘러 복을 상징하는 박쥐 문양이 당초무늬와 더불어 그려져 있습니다.

구연의 목 부분에도 ‘만수무강萬壽無疆’ 글자를 한 자씩 정성스럽게 써넣어 조선 후기 백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길상과 장식화 경향을 잘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굽바닥에 ‘함풍성조咸豐盛造, 1851~1861’라는 중국 연호가 있어 19세기 분원가마에서 제작된 왕실용 고급품으로 추정됩니다.

사각병은 장방형長方形 몸체에 어깨의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내고 구연을 붙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각병角瓶 가운데 하나로, 이전 시기 청자나 분청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형입니다. 이러한 기형은 물레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특수한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흔히 판성형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정제된 백토를 사용해 얇은

판을 밀고 적당히 반건조半乾燥 상태가 되면 사각으로 자른 뒤 서로 이어 붙이는 방법입니다.

반듯한 직선 형태로 이루어진 사각병 모양이 얼핏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제작까지는 오히려 복잡하고 세심한 작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흙과 흙을 이어 붙이는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설령 꼼꼼히 처리하더라도 굽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균열이나 터짐의 위험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각병의 굽 부분을 살펴보면 실금처럼 균열이 가 있습니다.

## 동서 도자 교류의 산물, 백자 사각병

동아시아의 백자 사각병은 유럽의 유리병을 본뜬 중국의 수출용 자기가 시발점이었지만, 중국과 일본의 백자 사각병과 달리 조선 후기 백자 사각병은 내수용 자기의 성격을 띠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세계 도자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으나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시도하지 않던 사각의 구연을 갖추거나 목가구의 다리 형태를 모방한 굽을 적용하는 등 조선만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거듭났습니다.





산책

## 작은 약속

김대곤  
시인

처음 떠 오른 햇귀의 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푸르른 바람의 소리  
그 은빛 목소리를 잊었네  
길게 누워서  
반가이 맞이 할수 없었네  
녹슨 마음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을수 없기에  
모든것이 사라져  
어둠속에서 별 들이  
눈을 뜰때  
비로써 정직한 마음을  
일으켜 보네  
풀썩 이슬  
차곡 차곡 작은 약속을  
만들어 가듯  
후~~  
내일 아침 놀랍지도 않을  
나의 약속도 쌓아보네.  
풀과 나뭇잎 흙 바람까지  
잠들 그위에서...

\*햇귀

아침 맨먼저 떠오르는 햇살



## 묘약인가 독약인가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살구꽃이 피면 한번 모인다.

복숭아꽃이 피면 한번 모인다.

한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한번 모인다.

서늘해지면 서지<sup>西池</sup>에 핀 연꽃을 구경하러 한번 모인다.

국화가 피면 한번 모인다.

겨울에 큰 눈이 내리면 한번 모인다.

한 해가 저물 무렵 화분에 심은 매화가 피면 한번 모인다.

퓌 낭만적이다.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구꽃이 피고 복숭아꽃이 필 때, 참외가 익고 연꽃이 필 때, 국화가 피고 눈이 내리고 화분에 매화가 필 때를 기다려 만나자니 그야말로 유유자적이 아닐 수 없다. 이채로운 것은 '모일 때마다 술과 안주, 붓과 벼루 등을 준비하여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라는 끝부분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좋은 벗과 더불어 시를 읊는 데 취흥이 빠질 소냐. 그 멋스러운 정경이 눈앞에 그려지는데, 놀라운 것은 풍류 넘치는 이 글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주도했던 시 모임인 죽란 시사<sup>竹欄詩社</sup>의 규약이라는 데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저술가·시인·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정약용 선생이? 탄생 250주년을 맞아 '2012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기도 한 당대의 석학이 꽃을 핑계로 시를 짓고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지만 사실이다. 죽란 시사는 선생과 선생의 형 정약전을 포함한 이유수·홍시제·이석하·이치훈·이주석·한치응·유원명·심규로·윤지눌·신성모·한백원·이중련·채흥원 등 뜻 맞는 열다섯 명의 선비들이 시를 짓고 즐기기 위해 만든 풍류계라고 한다. 모임을 주로 선생의 집에서 열었다 하여 당호인 죽란(대나무 울타리)에, 시를 쓰며 환담하는 모임이라 하여 시



사라는 말을 덧붙였다.

서문에 없는 별도의 별칙 내용에는 슬그머니 웃음이 난다. 연회할 때 요란하게 떠들어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세상 사람의 과오를 들춰내 말하는 계원에게는 벌주 2잔이, 모두와 함께하지 않고 사사로이 작은 술자리를 갖거나 까닭 없이 모임에 불참하는 계원에게는 벌주 3잔이 내려졌다고 하니, 짓궂게도 별칙을 빙자해 가벼운 일탈로 벌주를 탐한 이는 없었는지 모를 일이다.

죽란 시사의 선비들이나 한 시대를 풍미한 문장가, 학자들과는 결이 다르지만 땀 흘려 자연을 일구며 이웃과 더불어 막걸리 한 잔으로 고단함을 달랠던 민초들에게도 목도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 밭 가는 소리처럼 생활이자 생존이 담긴 절절한 시詩, 노동요가 있었다. 어깨가 벗겨지도록 무거운 돌이나 통나무를 옮기면서, 만선의 꿈을 안고 파도와 싸우면서, 겨우내 얼었던 비탈 밭에서 소를 몰며 부르던 노동요와 함께 민초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은 새참을 넘어 더없는 휴식이며 위로였을 것이다.

백약지장百藥之長이라 하여 술이 백 가지 약 가운데 으뜸이라는 말도 있지만 백독지장百毒之長이라 하여 백 가지 독 중 으뜸이라는 말도 있다. 술 마시는 사람의 행동이 각양각색이라 천 가지 성

품을 가진 게 술이라는 말도 있다.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일삼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져서 아무에게나 싸움을 걸고, 급기야 돼지처럼 추해져서 토하고 아무 곳에서나 똥굴게 된다는 탈무드의 경고가 전부가 아니다. 심한 주사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범죄의 대상이 되어 파출소에서 오라 가라, 급기야 알코올 의존증에 이르러 인생을 망치는 사람, 왕왕 있다. 내 주변에도 밤낮없이 술만 마시다가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된 사람도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연예인까지….

불가佛家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불음주계不飲酒戒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불음주(不飲酒 술을 먹지 말라)는 불살생(不殺生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불투도(不偷盜 주어지지 않은 것을 훔치지 말라), 불사음(不邪淫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불망어(不妄語 거짓말을 하지 말라)와 더불어 불자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중 하나다. 불음주를 제외한 네 가지는 그 자체가 죄악이



기 때문에 금하는 성계(性戒)로, 이를 어겼을 시 파문에 이르게 된다. 이에 비해 불음주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정신이 흐려지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지하는 차계(遮戒)다. 참회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도 있으나, 네 가지 성계가 지키면 생길 복(福)과 지키지 않으면 생길 화(禍)를 각각 다섯 가지씩 언급하고 있는 데 비해 불음주는 그 실(失)을 무려 36가지나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분별선악소기경(分別善惡所起經)』에 열거된 서른여섯 가지 허물에는 술에 취하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늘어나고, 부모를 욕되게 하고, 음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처님 진리를 공경치 않게 되고, 매사에 잘못이 많아지고, 법을 어기게 되고, 집안을 돌보지 않고, 재물이 줄어들고, 나쁜 일을 일삼게 되고, 건강을 해치고, 친분이 두터운 벗들이 떠나가고, 열반에서 멀어지고,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등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다. 불음주계 뿐이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침내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법화경의 말씀도 좋은 약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전통주 빛는 체험행사에 다녀왔다. 찹쌀로 지은 고두

밥에 밀로 만든 누룩가루와 끓여서 식힌 물을 넣어 걸쭉해질 때까지 버무려 통에 옮겨 담는 것이 과정의 전부였다. 집으로 잘 모셔온(!) 그것은 사흘 동안 깨끗이 씻은 손으로 아래위를 골고루 섞어주고, 그다음 이틀 동안 위를 푹푹 눌러주는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지금은 냉장고에 들어가 1주일 간의 숙성기간을 채우는 중이다. 술이 익으면 쌀알이 하얗게 떠오른다던데..., 내가 빚은 술맛은 어떨까..., 대여섯 잔밖에 되지 않을 이 귀한 술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마치 양조장이라도 차린 것 같은 기분인데.

술이 익듯 사람도 익어야 할 것이다. 죽란 시사의 선비들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술자리라면 굳이 불음주계까지야. 지나친 음주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시키지만 적절한 음주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 등 정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달리 나왔겠는가.

이제 사흘 후면 술을 거를 것이다. 술맛의 10%는 그 술이 가진 본연의 맛이고, 나머지 90%는 함께하는 사람의 향취라고 했다. 아주 좋은 술을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법상 정사  
수인사 주교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보면 막막하게 되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하게 된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담담하게 건너갈 것 같다.

2007년 겨울, 폐암으로 미국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법정 스님은 ‘고마움’과 ‘나눔’을 자주 이야기했다. 수행자답게 생사의 문제에 담담했던 스님은 2009년 다시 병이 재발하자 주위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실을 찾은 청학 스님이 물었다.

“생과 사의 경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스님은 어떠십니까?”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스님은 종이에 “원래부터 생과 사가 없어”라고 쓰며 생사를 초월한 모습을 보여줬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 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벗어 버린 헨 옷이니까,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 데서나 다비荼毘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병상에서 스님은 병시중을 드는 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지금 내 소원은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하루빨리 다비장 장작으로 올라가는 것이야!”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한 삶을 추구하셨던 스님은 허례허식의 장례절차가 이뤄진다면 죽은 시신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만두라고 소리칠 테니 내 뜻에 따르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스님의 생전 소원은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단하게 사는 것’이었다. 사는 곳이 번거로워지면 ‘버리고 떠나기’를 통해 당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 사후 장례절차까지 철저하게 당부하셨다. 입적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다.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 젊은이여! 연애하라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 『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상당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여 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 삼일장 하지 말고 지체없이 화장하라.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고 사리를 찾지 말고 탑, 비도 세우지 말라.”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진흙탕 싸움의 현실 세계에서 스님은 ‘비어있으나 충만한’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무소유>, <텅 빈 충만> 등 수많은 스테디셀러를 쓴 스님은 인세 전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소리 없이 나눠주고는 그 일을 깨끗이 잊었다. 남을 도왔다는 생각마저도 놓아버린 스님의 ‘무소유’는 말 그대로 ‘텅 빈 충만’이었다.

소유를 범죄처럼 생각했던 간디에게 깊이 공감한 스님은 관도, 수의도 없이 평소에 입던 기사 그대로 걸치고 좁은 평상에 누운 채로 다비의 불길에 들어갔다. 그 흔한 꽃도, 만장도, 추도사도, 임종게<sup>臨終揭</sup>도 아무것도 없었다. 스님은 ‘무소유’를 평생 설파했고,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그 길을 쫓았다. 스님이 남긴 무소유, 그 텅 빈 충만은 신선하고 활기 있는 큰 울림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스님은 법문 마지막을 다음 같이 맺었다.

“내 말은 이쯤에서 끝내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봄에 피어나는 저 찬란한 꽃들에게 들어라.”

31년 동안 방송작가로 일했던 필자는 방송을 모니터하는 습관이 있는데 요즘 방송의 가장 큰 변화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외에 이별, 이혼, 재혼, 첫사랑, 성 소수자 등 다양한 컨셉으로 시청자들의 취향에 맞춘다. 리얼리티 예능은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가성비 높은 예능이다.

연애 리얼리티의 성공 배경은 연애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서 연애를 하기가 어려워졌기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싱글인 상태로 사는 기간이 길어져서 남의 연애를 구경하며 연애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혼밥이 늘수록 떡방이 유행하는 것과 같이, 연애가 어려워질수록 연애 예능의 소비는 늘어난다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이렇게 연애 리얼리티 방송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사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려면 매력 자본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고, 연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MZ세대들은 사랑의 가성비를 따져서 가성비가 낮으면 연애를 포기하고 그 비용을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에 투자를 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도록 단 한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40%에 육박한다는 최근 통계를 보고 그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남성들의 연애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남성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연애에 대한 변화가 우리 사회를 점점 초개인화로 만들면서 혼밥과 혼술에 이어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하는 것이 당연해지면서 마침내 혼자 사는 독신을 양산하고 있다.

한때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응원했는데, 이제는 ‘젊은이여! 연애하라’고 독려를 해야 우리 사회가 활기를 찾게 될 것 같다.

때마침 불교계에서 템플스테이를 30대 미혼 남녀가 참가하는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지난해 처음 실시하였는데 경쟁률이 150대 1이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올 봄에는 20명이 참가하여 4쌍의 커플이 탄생할 정도로 커플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참가 신청서에 종교란이 없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불교계에서는 타종교도 함께 하겠다는 포용적 자세로 젊은 청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 패러디한 ‘나는 절로’에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불교



의 인연법이 전세계적인 현상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현대 사회가 초개인화 못지않게 초연결 사회이다. 모든 기술이 사람과 연결되고 있는데 초연결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으로 이어져야 우리는 미래를 풍성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불교의 인연법이 우리 젊은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 나만의 고통이 아닌 우리의 고통으로

하현주

동국대학교 선학 전공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고통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없애야 할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성숙의 여정에서라면 또 기꺼이 겪어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행복과 불행은 마치 쌍둥이 자매와도 같다는 아합경의 비유처럼, 행복의 이면에 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이 고통과 불행을 우리는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고통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나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성숙한 태도일까?

### 자기몰입적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는 자신과 타인이 분리된 개체라는 환상 속에 안주하며 살아간다. 독립되고 견고한 자아를 가진 우리 각자는 서로의 역사 속에서 분리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 견고하고 높은 자존감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최상의 윤리 덕목으로서 그 위용을 발휘하게 되었다. 양심보다는 자존감 없는 것이 더 부끄러운 문화가 되었고, 자기 주장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도덕적 반전도 일상화된 지 오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존감에 목을 매는 현대인들이야말로 자존감의 기근 상태가 아닐까?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추구하고 수집하기 위한 SNS에의 자기애적 몰두, 타인의 인정 없이는 자기 자신의 선호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결핍된 사람들. 이 고질적인 자기중심성, 자기몰입적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에게서만 문제를 찾고, 또 자기 자신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 그야말로 자기에게 중독된 인간으로 남아, 자기중심적, 자기몰입적 고통 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 우리가 먼저(We First)

이러한 ‘자기 중독’의 폐해는 ‘나부터 먼저’(Me First)라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먼저’(We First)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도 ‘나에게서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괴로운 순간 흔히, ‘나만 또 이렇게 불행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이렇듯 자신의 경험을 경험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나’와 연관시키는 것을 자기참조적 과정(self-referential process)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을 경험할 때, 그 불안이 자기 자신의 것이고, 그 불안이 경험되는 출처가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아니, 나에게 경험되는데 그 불안이 발생된 곳이 내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그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안을 주입했다는 말인가? 내가 다른 사람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렇듯 자명한 사실에 왜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실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다쉬(Hadash)와 동료들은 내적 경험들을 '자기참조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체험적으로 '탈자기참조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치료적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즉,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그저 현상일 뿐 '나의 경험'이라거나 '내가 만든 경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즉, '아, 나는 왜 또 불안해하지'하는 태도에서 '나'를 떼고, 지금 '불안이 경험되는구나'로 경험하자는 것이다.

### **'자타일시성불도'의 염원으로**

본 칼럼의 초반부터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정서는 전염

된다. 심지어 인지적 취약성마저도 전염된다. 더 이상 우리가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심리학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내가 경험하는 지금의 이 불안이, 내가 믿는 이 가치관들이 비단 나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현상을 경험하면서 어찌 그것이 '나의 고통'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대기의 숨결처럼, 우리는 매순간 타인의 고통을 함께 들이마신다.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해, 그의 몸짓과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만들어내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무수한 조건들이 얽히고설켜 빚어낸 현상을 우리가 그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불안도, 슬픔도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로지 나로부터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즉, 고통의 공유된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내 가슴만을 향해 있던 시선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자. 나의 고통이 아닌 우리의 고통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두의 고통이 동시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자타일시성불도<sup>自他一時成佛道</sup>'의 염원이 우리를 채울 때, 자기몰입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된다.



## 놓치고 싶지 않은 것

###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도시에 살 때였다. 사진기를 들고 아파트 뒤뜰을 어정대다가 나무 등걸에 매달린 매미 껍데기를 만났다. 흙투성이다. 그런데 눈이 초롱하다. 그냥 껍데기가 아니다. 방금 땅속에서 올라온 기록한 생명이다!

아, 버러지에게 날개가 돋치는 천지개벽의 의례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6년 만의 우화<sup>羽化</sup>, 그 현장을 지켜보노라니 가슴이 두근댄다. 그런데 매미의 생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빛으로 나가려고 땅속에서 6년을 기다렸는데 여름 한 철로 끝이라니...

매미 소리가 들려온다. 올해의 첫 매미다. 불현 듯 그 매미가 생각난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매미는 6년만에 빛을 만난다!

그런데 나는? 암흑 속에서 몇 년이나 있었던 걸까. 육십갑자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처음으로 공부터를 찾았다. 그러나 어찌 60년 만이었겠는가. 세세생생 깜깜하게 살았으니 600년 만이었던지 6,000년 만이었던지, 아니면 아예 138억 년 만이었던지 누가 알랴!

매미라는 자연물은 저 싯다르타 수행자와 똑같이 6년 만에 비상을 한다. 그런데 이 물건은 온갖 주관적 작위로 푹푹 멍쳐서 얼마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 6년 만에 창공을 날다가 한 철 지나 떠나는 매미, 한 철이 짧게 느껴지는가. 성인<sup>聖人</sup>은 아침에 도<sup>道</sup>에 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데 눈감은 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전히 허기를 느낄 것이다.

60년 만인지 6,000년 만인지 땅속에서 기어나왔다. 스승의 말씀을 들었다. 실체시<sup>實體視</sup>는 지옥이다. 연기시<sup>緣起視</sup>로 벗어나라. 한 생각을 하라. 잘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가르침을 따라가며 본래 멸<sup>滅</sup>을 확인한다. 가슴이 땡 뚫린다.

맹구우목<sup>盲龜遇木</sup>, 바다 속을 떠돌던 눈먼 거북이 통나무를 만난 것 같은 인연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 이해했으면 반복 관행하고 곱씹어라. 그 말씀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귀 기울인다.



## 제갈공명의 부인 황 씨 이야기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의 부인인 황 씨에 대한 이야기이다.

얼굴 모습이 전부가 아니긴 하지만 이 제갈공명에게는 못생긴 부인이 있었다. 제갈공명이 신부감을 찾고 있을 때, 황승언은 “나에게 추하고 못생긴 딸이 있다. 모습은 노란 머리에 피부색은 검고 드러낼 것이라곤 오로지 재능밖에 없긴 하지만 당신과 배필이 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제갈공명이 승낙을 하자, 황승언은 딸을 마차에 태워 데려다 주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거리로 삼았고, “제갈공명의 아내 고르는 일은 흉내 내지 마라.”라는 말까지 떠돌아 다녔다고 한다. 제갈공명이 마침내 결혼을 하고 첫날밤 신방에 들어갔는데, 황 씨 부인이 너무 못생겨서 차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신부 황 씨가 황급히 제갈공명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만 옷깃이 찢어져 버렸다. 황 씨 부인은 제갈공명의 옷을 받아 기워 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바느질을 한답시고 돛바늘로 듬성듬성 꿰매는 모습이 영 마

음에 들지 않았다.

제갈공명은 이런 부인의 모습을 보고 나니 만정이 떨어지고 더더욱 미운 마음이 들어 바느질한 옷을 받아 들자마자 신방을 나와 버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집 마당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 마당에 나온 장인 때문에 다시 신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날이 밝자 꿰맨 옷을 다시 보았더니 듬성듬성 꿰맨 줄 알았던 옷이 틀로 박아 놓은 것처럼 곱고 정갈스러웠다.

제갈공명의 부인은 이렇듯 바느질에만 솜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없는 매사에 지혜롭고 현명한 인물이었다. 제갈공명은 이런 부인의 도움으로 더더욱 지성과 덕성이 뛰어날 수 있었다. 제갈공명의 아내 황 씨는 이렇게 재능이 뛰어나고 뽀뽀이가 훌륭해서 남편이 승상의 자리에 오르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갈공명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자 삼고초려(三顧草廬)의 현장인 호북성 양양 용중에 살 때, 손님의 방문이 있어 아내 황 씨에게 국수 준비를 부탁했더니 바로 국수가 나왔다. 무후(제갈공명)가 그 속도를 기이하게 여겨, 나중에 몰래 식당을 엿보았더니, 몇



개의 나무 인형들이 나는 듯이 보리를 자르고 맷돌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아내에게 이 재주들을 전수 받아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식량 운송용인 목우유마<sup>木牛流馬</sup>를 만들기도 했다.

제갈공명은 늘 깃털 부채를 들고 다녔는데 이는 아내 황 씨의 부탁이었다. 그녀가 부채를 선물한 데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다. 황 씨가 제갈공명에게 늘 이르기를, “친정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포부가 크고 기개가 드높은 인물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유비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당신의 표정이 환했지요. 하지만, 조조에 대해 말할 때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군요. 손권을 언급할 땐 고뇌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큰일을 도모하려면 안색에 곧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착해야 하니 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도록 하세요.” 제갈공명은 집을 떠나있는 동안에도 늘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다.

평소에도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아내 황 씨가 말한 ‘얼굴을 가리라.’라는 이 말은 ‘침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녀는 마음이 고요해야 태연함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엔 어떨까? ‘욱’하는 성질 때문에 순간을 참지 못해서 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이해심과 배려심 부족으로 인해 다툼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며, 성급하게 처리하려다가 이내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았던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고사를 지혜의 샘물로 삼아, 각자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안회(安 회)는 배움을 좋아하고 성품도 좋아 공자(孔子)의 마음에 든 제자 중의 하나였다. 하루는 공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들렀는데 한 포목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시끄럽기에 무슨 일인가 해서 다가가 알아보니 가게주인과 손님이 시비가 붙은 것이다.

포목 사러온 손님이 큰 소리로 “3 x 8은 분명히 23인데 당신이 왜 나한테 24전(錢)을 요구하느냐!”

안회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에게 먼저 정중히 인사를 한 후 “3 x 8은 분명히 24인데 어째서 23입니까? 당신이 잘못 계산을 한 것입니다.”하고 말을 했다.

포목을 사러 온 사람은 안회에게 “누가 너더러 나와서 따지라고 했냐? 도리를 평가하려거든 공자님을 찾아야 옳고 틀림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럼 만약 공자께서 당신이 졌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내 목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제가 틀리면 관(貫)을 내놓겠습니다.”

두 사람이 내기를 걸고는 공자를 찾아갔다. 공자는 사연의 전말

을 다 듣고 나서 안회에게 웃으면서 “네가 졌으니 이 사람에게 관을 벗어 내주거라.”

안회는 순순히 관을 벗어 포목을 사러 온 사람에게 주었다. 그 사람은 의기양양하여 관을 받고 돌아갔다.

안회는 공자의 판정에 대해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스승이 이제 너무 늙었고 우매하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안회는 집안일을 핑계로 공자에게 고향에 잠시 다녀올 것을 요청하였다. 공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락하였다.

안회는 떠나기 직전에 공자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갔다. 공자는 안회에게 일을 처리하고는 즉시 돌아올 것을 당부하면서, 두 마디



충고를 해주었다.

안회는 작별인사를 한 후 집으로 향해 달려가다가 길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와 번개를 동반한 큰 소나기를 만났다. 잠시 비를 피하려고 급한 김에 길옆에 오래된 고목 나무 밑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순간, 스승의 첫 충고가 떠올랐다.

“천년고수막존신 千年古樹莫存身,

천년 묵은 나무에 몸을 숨기지 말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도 그동안 사제 師弟의 정을 생각해서 스승이 해준 충고 한 번 짚은 들어줘야지 하며 그곳을 다시 뛰쳐 나왔다. 바로 그 순간에 번쩍하면서 그 고목이 번개에 맞아 산산 조각이 되버렸다.

한참 달리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늦은 심야였다. 그는 집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보검으로 아내가 자고있는 내실의 문고리를 풀었다. 킁킁한 침실 안에서 손으로 천천히 더듬어 만져보니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자고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와 검을 뽑아 내리치려는 순간 공자가 충고한 두 번째가 생각이 났다.

“살인부명물동수 殺人不明勿動手,

명확치 않고서는 함부로 살인 하지 말라.”

얼른 촛불을 켜보니 침대 위에 한쪽은 아내이고 또 한쪽은 자신

의 누이동생이 자고 있었다.

안회는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공자에게 되돌아가 스승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이 충고한 두 마디 말씀 덕분에 저와 제 아내와 누이동생을 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공자가 안회를 일으키며 말했다.

“어제 날씨가 건조하고 무더워서 다분히 천둥번개가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 너는 분개한 마음에 또한 보검을 차고 떠났기에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집에 돌아간 것은 그저 핑계였고, 내가 그런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내가 너무 늙어 사리 판단이 분명치 못해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어 공자는 지난 일을 설명했다.

“한번 잘 생각해보아라. 내가 23을 맞다고 하면 너는 지게 되어 그저 관하나 내준 것뿐이지만, 만약에 내가 24가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 하나를 내놓아야 하지 않았겠느냐? 안회야, 말해 보거라. 관이 더 중요하더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더냐?”

안회가 비로소 이치를 깨달아 공자 앞에 큰절을 올렸다. 그 이후부터 안회는 그의 스승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 서원당 중앙 불단<sup>佛壇</sup>의 문양<sup>紋樣</sup>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충지사 서원당 중앙의 본존 ‘옴마니반메훬’ 불단아래 중앙의 램(卍)과 사중수법 바(卐), 아(卐), 하(卐), 라(卐)의 범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불단 중앙의 좌우 측면 양쪽에는 태장계와 금강계 양부만다라의 대일여래 삼매야 문양이 각각 있습니다. 삼매야는 맹서를 의미하고, 진언밀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수행하던 때의 서원, 즉 본서<sup>本誓</sup>를 나타내는 말로 칼이나 탑, 보주, 구슬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 대일여래의 문양이 중요시 되는 것은 밀교에서 가장 중심 되는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 ① 태장계 대일여래 문양 (중앙 불단 왼쪽 측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나타내는 자성<sup>自性</sup> 법신<sup>理法身</sup> 부처님으로서 태장계만다라의 중앙에 좌정해 있습니다.

이법신<sup>理法身</sup>은 ‘아’자 본불생<sup>本不生</sup>의 진실에 안주하는 불신<sup>佛身</sup>을 말합니다. 이 대일여래의 진언을 ‘나모 사만다 보다남 아비라 훬캬’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자는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 ‘비’는 언어에 의한 표현을 초월한 세계, ‘라’는 때묻지 않은 세계, ‘훬’는 집착에서 벗어난 세계, ‘캬’는 허공과 같이 장애



금강계 대일여래



태장계 대일여래-오륜탑

가 없는 자유자재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를 일체의 근원인 지<sup>地</sup>수<sup>水</sup>화<sup>火</sup>풍<sup>風</sup>공<sup>空</sup>오<sup>五</sup>대<sup>大</sup>를 오륜탑<sup>五輪塔</sup>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탑은 아래로부터 사각모양, 원, 삼각, 반월모양, 보주<sup>寶珠</sup>를 쌓아올린 탑입니다.

## ② 금강계 대일여래 문양 (중앙 불단 오른쪽 측면)

금강계 대일여래는 자비와 지혜의 세계를 나타내는 자수용<sup>自受用</sup> 지법신<sup>智法身</sup>의 부처님으로 금강계만다라의 중앙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지법신<sup>智法身</sup>은 진언행의 보살이 오상성신관<sup>五相成身觀</sup>의 삼밀행을 닦아 깨달음을 이루신 불신<sup>佛身</sup>을 가리킵니다. 금강계 대일여래의 삼매야형도 탑으로 표현됩니다.

금강계 대일여래는 태장계와 달리 연화 위에 옆으로 눕힌 오고저<sup>五鉗杵</sup>를 올리고, 그 오고저 위에 탑을 올려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저(금강저)는 고대 인도의 무기로 사용되었고, 밀교에서는 견고하여 모든 것을 쳐부순다는 뜻입니다. 여래의 지혜가 금강과 같아서 부서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번뇌를 파괴하는 보살심의 상징입니다.

※ 충지사의 중앙불단 좌우측면 문양이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 07. 걷다가 주저앉으며 잘 안 걸으려는 아이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주저앉고 걷지 않으려 한다. 손을 잡아 일으켜주려고 하지만 일어나지 않고 손을 뺐으며 안아달라고 한다. 일으켜 세워 손을 잡고 함께 걸어보지만 조금 걷다가 금세 힘들어하며 주저앉는다.



#### ● 원인

- 다리의 근력이 부족하여 걷는 것이 힘든 경우
- 외출을 할 때 유모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
- 아이가 걷지 않으려고 할 때 조금 더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 의존적 성격으로 스스로 걷지 않으려고 한 경우
- 걷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 ● 지도방법

- 안전하고 즐겁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 아이의 근육을 풀고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한다.
- 장난감 유모차에 좋아하는 놀잇감 또는 인형을 태우고 아이가 직접 밀면서 걸어 볼 수 있도록 한다.
- 아이가 좋아하는 신발을 신고 걸어 볼 수 있도록 한다.
- 힘들어 하면 바로 안아주기 보다는 충분히 쉬었다가 걸어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비오는 날 또는 다음날 물웅덩이를 찾아 밟거나, 선 밟고 가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나뭇잎 줍기 등 놀이나 게임을 통해 참여해 걷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며, '혼자서도 정말 잘 걷는구나!'라는 칭찬으로 걸음에 성취감을 준다.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이차돈의 순교 Ichadon the Martyr

### PART 3. 우리의 민속 문화

I 학등

II 보현보살 현화도

III 도심 속의 미륵불

IV 팔만대장경

V 오방신장

VI 이차돈의 순교

VII 관음보살

IX 금강역사

VIII 자장율사와 황룡사



관음보살 Bodhisattva Avalokitesvara





금강역사 The Diamond Deva of Great Strength

자장율사와 황룡사 Jajang Yulsa (Monk) and Hwangnyongsa



#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㉑				㉒		②		㉓
			③㉔					
⑤	㉕					④	㉖	
				⑥㉗				
⑧						⑦		
			⑨		㉘			
㉙		㉚		⑩				㉛
⑪			㉜					⑫
			⑬		㉝			
					⑭			⑮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 가로 열쇠

- ① 양력 7월 15일, 총지중의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우란분절)
- ② 먼 곳의 물체를 확대하여 똑똑하게 보이도록 만든 광학 기계
- ③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약재상이 모여 있는 곳, 서울의 동쪽에 있는 00시장
- ④ 밤에 집 근처 가까운 곳에 놀러 가는 일, 밤산책
- ⑤ 조선 중기, 서산 대사 휴정 스님이 지은 불교의 개론서
- ⑥ 금으로 장식하여 만든 향로
- ⑦ 줄로 만든 덧, 울무의 다른 말
- ⑧ 대나무의 끝을 손가락처럼 구부려 손이 안 닿는 부위를 굽을 수 있도록 만든 물건
- ⑨ 두 사람이 맨손으로 서로 맞잡고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조르거나 눌러 승부를 겨루는 운동
- ⑩ 조선 제21대 영조의 둘째 아들, 골육상잔의 비극적 사건
- ⑪ 백중날 아귀도에 떨어진 모친을 구제한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명
- ⑫ 전라남도의 남동쪽에 있는 밤바다가 유명한 도시
- ⑬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에 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⑭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⑮ 홍보석이라 불리는 7월의 탄생석

## 세로 열쇠

- ㉑ 바다와 육지가 서로 달아서 길게 뻗은 선
- ㉒ 젤라틴, 계란 흰자, 설탕, 향료, 식용 색소 따위를 섞어 거품이 일게 한 다음 굳힌 양과자
- ㉓ 경비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곳
- ㉔ 어떤 사물의 바깥쪽 경계에 가까운 부분
- ㉕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㉖ 엔틱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짙은 적갈색을 띠는 원목
- ㉗ 귀, 눈, 입,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 ㉘ 석가모니부처님을 높여 이르는 말
- ㉙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로, 간지를 따라서 정한 해로 말하면...
- ㉚ 두 다리로 패달을 밟아 바퀴를 돌림으로써 움직이게 하는 탈 것
- ㉛ 승자자 입는 법의, 00와 장삼
- 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눈발에 세워 두는 조형물
- ㉝ 조선 시대, 의금부에 속한 벼슬아치



지난 호 정답

①㉔ 광	명	㉒ 진	언		㉑ 확		② 망	㉓ 부	석
대		눈		③㉕ 현	충	일		석	
무		깨		금			④㉖ 인	사	㉔ 동
⑤ 변	㉗ 동	비		⑥ 지	족	㉙ 불	육		아
	창		⑦ 막	급		세			리
	⑧ 생	㉚ 공		⑨ 기	㉛ 자	출	입	㉜ 증	
㉕ 외		⑩ 비	밀		비			㉝ 명	** 호
⑫ 강	아	지		⑬㉞ 양	심	# 선	언		국
내				수		구			불
⑭ 유	리	향	아	리		자		⑮ 종	교

제8회 청소년 바른인성 프로그램

2박3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한마음포  
캠프

2024. 07. 23 - 25

웅인에버랜드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대상 불교총지중 교도지녀, 권음학사 동해중학교 학생 내용 인성강의, 문화체험  
개별 참가문의 각사원 주교 및 행사접수처로 문의 ☎ 02-552-1080-3

주최 불교총지중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 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BBS 불교방송 한국방송 BTN



##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b>서울경인교구</b>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b>충청전라교구</b>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b>대구경북교구</b>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b>부산경남교구</b>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mailto: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남 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우 인  
유지호 김운서 이수영 이인성 이혜성 자선화  
정건호 총지화 한칠수

###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육장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송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재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mailto: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모처럼 염색을 하고 왔더니 직원이 말한다.

“국장님,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내가 젊어 보인다고 해서 더 젊어진 건 아니다.

우연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노래를 들었다.

경쾌한 고고 리듬과 트로트 멜로디가 합쳐져 꽤 신났다.

가수 김용임 씨가 불러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

가사는 이렇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대수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중략)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젊은 날

‘젊다’와 ‘늙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다.

젊다: 형용사,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한창때에 있다.’

늙다: 자동사, ‘나이를 많이 먹다.’

젊음: 명사, 젊은 상태

늙음: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젊다’는 현재형이고, ‘늙다’는 진행형이다.

늙어가는 과정이지 늙은 현재는 없다.

내 사전에도 더 이상 ‘늙음’은 없다.

이를 깨닫는 동안 젊은 다르마를 펴냈다.

발행일 총기 53(2024)년 7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재원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7월호

---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은 속일지 몰라도  
불보살님과 눈뜬 자를 어찌 속이라

---

- 환당 대중사 범어록 중에서 -